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김명숙
저음

2012 무 화 과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병숙
지음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길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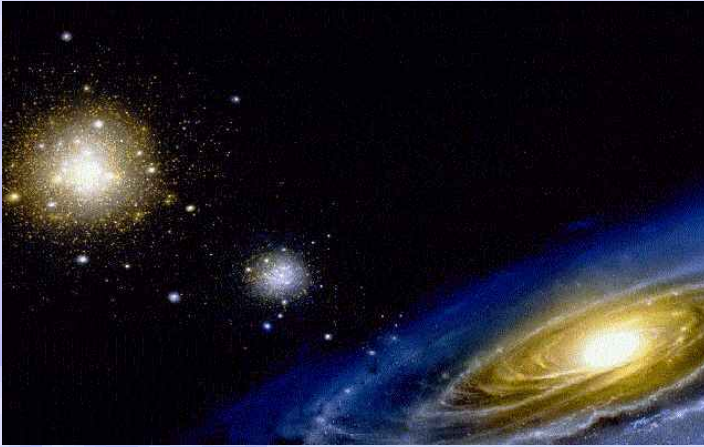
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42-3



어버이 신께서 이번에 마련하신 최대의 계획은 지구가 보호막 안에서 광자대에 진입한 후 시리우스 성좌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시리우스 우주인



< 차례 >

1부 여러분은 지구의 미래

1. 재림예수의 메시지...../15
2. 우주의 광대한 구조
3. 미카엘 대천사
4. 아쉬타 사령관
5. 영적이란 어떤 뜻일까?
6. 태양과 태양인들...../23
7. 에덴동산엔 인공태양이 있었다
8. 하느님의 불꽃
9. 마음의 힘과 광자 에너지
10. 유전자와 영적 안테나
11. 기독교적 흑백논리...../28
12. 자비, 사랑의 진정한 의미
13. 인간 탄생의 역사
14. 의식과 신성
15. 천사들의 추락이란?
16. 5차원과 3차원의 차이...../35
17. 회복과 귀향의 시대
18. 창조론과 고정관념
19. 미카엘 대천사의 진화론-1
20. 미카엘 대천사의 진화론-2
21. 은하를 탄생시킨 블랙홀...../47
22. 차원주입과 물질우주의 탄생
23. 두 가지 창조
24. 두 번째 창조의 개요
25. 일체유심조...../54
26. 유신론과 과학
27. 핵물리학과 무신론
28. 창조의 자궁, 광자 에너지
29. 말씀으로 창조했다?...../60
30. 양자 물리학과 고전적 가치
31. 온유함과 몽매함
32. 다시 필요한 종교개혁
33. 성장하는 인류와 지혜...../67
34. 간접적 구원과 직접적 구원
35. 21세기 교회가 할 일
36. 종교 사이의 벽을 허물라
37. 감옥인가, 학교인가?
38. 실재와 미망을 분별하라...../74
39. 신은 형상을 취하지 않는다
40. 이성과 영성의 만남
41. 붓다와 어머니 하느님
42. 불교와 우주
43. 우아일체, 그리스도성...../84
44. 의식과 인식의 만남
45. '추락'과 순교자의 길

2부 21세기와 지구

1. 농부의 4계절과 우주의 4계절
2. 비관인가, 낙관인가...../96
3.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 두 가지 플래시보 효과
5. 하느님은 지혜를 금하지 않았다
6. 민족신앙은 우상숭배가 아니다.../113
7. 아버지-어머니 하느님, 어버이신
8. 조건없는 사랑이란 어떤 뜻일까
9. 반항아 세드락
10. 선과 악의 경계선...../130

11. '신성한 간섭'이란
12. 20세 청년과 어린아이
13. 21세기 인간과 자아인식
14. 유전자의 힘과 인내의 힘...../141
15. 십자가 효과와 유전자 효과
16. 몇가지 오해들
17. 천국행 가방
18. 우주시대와 삼두마차...../156
19. 지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20. 역사의 신과 나치즘
21. 콩크리트 천정과 유리 천정
22. 변화중에 있는 지구와 지구인
23. 후불제 천국과 현불제 천국...../174
24. 극락왕생의 시대가 코앞에
25. 고용된 일꾼과 시온성의 하느님
26. '자유'의 시대적 의미
27. 나치와 노아의 홍수...../186
28. 용의 후손과 '신-자아' 운동
29. '즐김'의 두 가지 길
30. 종교도 거듭나야 한다
31. UFO와 판도라의 상자...../199
32. 북한 사회와 천국이 다른 점
33. 이단과 이해(異解)
34. 사도 바울과 스테판
35. 진화하고 순환하는 우주...../222
36. 십자가 고난과 플레야데스 역사
37. 우주의 새로운 학교
38. 리바이 도울링과 유엔시아서
39. 두 가지 걸림돌...../226
40. '신유술해년'의 시대
41. 투쟁과 분쟁의 와중에서
42. 제3의 천국
43. 지구 운명과 우주의 불량배들
44. 민주주의와 제사장 국가...../248
45. 영화 제5원소와 사랑
46. 길거리의 아이들과 자기인식
47. 교육방송과 동성애 교육
48. 역사적 격동기와 퇴폐문화
49. 신을 이해하는 두가지 길...../265
50. 우주 쓰레기와 행성고리
51. 플레야데스의 실수와 새사명
52. 세 갈래의 지구의 운명
53. 통치는 곧 봉사다...../279
54.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55. 하느님의 신이 수면 위를
56.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57. 황소자리를 떠나는 플레야데스./293
58. 신으로 사느냐 인간으로 사느냐
59. 앙카라 집단과 1만명의 사절단
60. 뇌신경학과 초월적 요소
61. 혁명기에 나타난 변질현상들
62. 만물과 신의 사념과 기적...../312
63. 자아 망각과 자아극복
64. 단어들의 개념과 초월하기
65. Iamness와 좁은 문
66. 거짓말을 못하는 유전자...../326
67. 산과 케이블카와 인삼
68. 음식과 승리의 여신과
69. 다윗의 염소와 하인의 염소
70. 광자대를 떠나는 여행
71. 위기의식과 경외심...../342
72. 미다스의 짐마차와 알렉산더
73. 알렉산더와 지혜의 칼
74. 미신, 신앙, 진화, 정복
75. 퇴마의식의 치료자와 악마...../357
76. 멜기세덱의 사명이란?
77.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78. 백개의 진열장과 호사다마
79. 지구가 식민지화 되어선 안된다.
80. 컬링 경기와 중립국 행성...../381

- 81. 호모싸피엔스와 호모크리스투스
- 82.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 83. 복희와 여와, 바람에 관한 이야기
- 84. 미드웨이어와 몬조론손 판사...../391
- 85. 환단고기와 우주로부터의 조상들
- 86. 놀라운 축복, 새 구세주의 시대
- 87. 몬조론손 판사님의 메시지
- 88. 감각적 삶에 대하여...../404
- 89. 유랜시아서와 지구의 운명
- 90. 미투 운동과 판도라의 상자
- 91.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 92. 세계적 문제들의 돌파구...../415
- 93. 진화/순환하는 우주와 절대정신
- 94. 끝맺음의 글



< 서문 >

청소년 소녀 여러분,

국내 과학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방청석의 한 중학생이 강사에게 UFO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프로가 외계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학생의 질문은 UFO들에 관한 소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는 UFO 같은 것은 없다는 식의 대답을 했고, 질문했던 학생의 표정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스런 표정이었던지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과학자들이 UFO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불만스럽고 답답한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랍니다.

그러나 청소년 소녀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구의 미래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난관들이 있을 미래를 넘겨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때를 택해서 지구에 환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지구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자원해서 지구에 태어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로 지구에 태어났든, 여러분 모두는 지구의 새싹이고 지구의 미래입니다.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의 여러분은 현재의 기성세대보다 더 현명하고 혈기왕성할 것이지만, 사라지는 기성세대로써 남기고 갈 노파심의 몇 마디를 전할까 합니다. 앞장의 권두언에서 말했듯이, 지구는 요한계시록과는 다른 운명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광자대 안에서 1천년 동안 머무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광자대를 떠나 시리우스 별자리로의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기독교 주일학교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느님과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종

족이 약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문 것은 왜였을까요? 이집트에서의 삶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기성세대를 데리고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지구도 4-5차원 행성으로의 승격이 2060년 경으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지구의 지성인 대다수가 아직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반-외계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의 법정에서 약 60년의 시간을 허용해 주신 거랍니다. 앞으로 남은 약 45년 동안은 모세의 백성들처럼 광야에 머물며 여러 새로운 가치와 삶의 규범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소녀들이 자라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 기초지식이 될만한 뉴에이지적 상식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내놓습니다.

2017년 8월

저자 김병숙

(사용된 인용문과 조각그림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후에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 재림예수의 메시지

2천년 전에 부활한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대중들 앞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러나 1980년대에 미국의 버지니아 에신이라는 여성을 통해 여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하문명 출판사가 번역 출판했는데 아래는 그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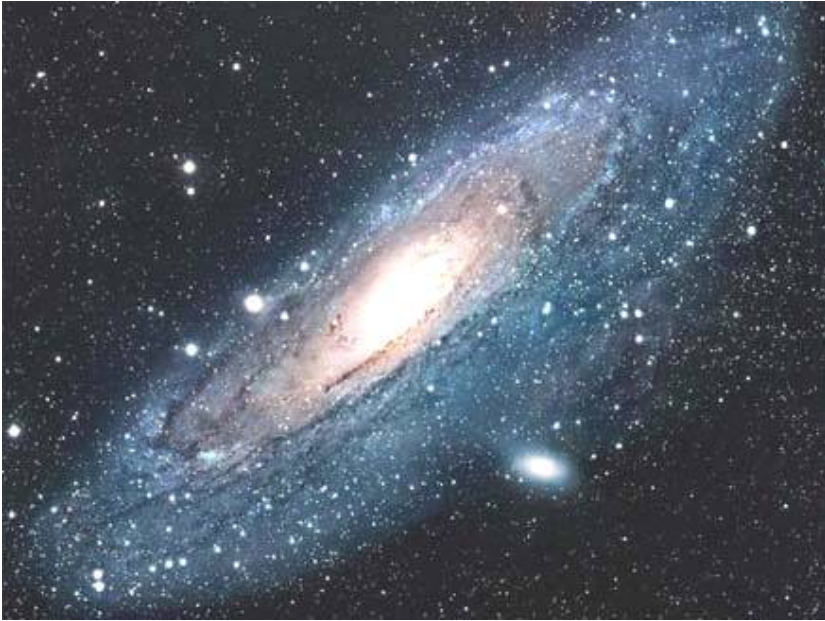
오늘날의 어떤 교파들은 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의 나의 승천에 대해서는 짝막하게 설명하고 만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있지 않으며, 십자가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필요한 슬픔과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다.¹⁾

오늘날 인류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발전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2천년 전에 주었던 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오직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심각한 맹목적 숭배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참된 메시지 대부분을 제거해 버렸다.....나는 어떤 인간도 하느님과 직접적인 내면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지(靈智)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왔었다. 이것이 내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1) 이하 모두 은하문명 간 '2012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에서 인용.



< 2 > 우주의 광대한 구조

1834년에 미국에 주어진 '유랜시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때가 리바이 도울링이라는 사람이 우주인과 접촉한 시기였으니까 지구인들에게 우주에 관한 상식을 전달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랜시아서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봐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것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의 지구인들을 위해 주어진 책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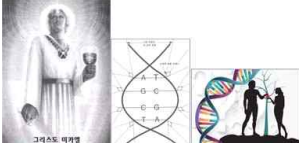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전체 광우주의 중심에는 '위대한 중앙우주'가 있고 그 중심에는 '낙원섬'이라는 우주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과 은하들은 움직이고 공전하지만 '낙원섬'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별이 아니라 '섬'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타원형의 넓적한 대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의 거대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구요, 그 아랫부분에서 발진되는 우주동력이 전체 광우주를 팽창시키고 회전시킨답니다. 일정기간 팽창한 다음에는 전체 광우주는 다시 수축하는

계절이 온답니다.

낙원섬은 수많은 블랙홀들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바깥에는 약 10억에 달하는 태양과 행성들이 공전하는 '위대한 중앙우주'가 있습니다. 중앙우주 역시 수많은 블랙홀들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 망원경에는 잡히지도 않는답니다. 블랙홀의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7개의 '대우주'가 있고, 각 대우주에는 약 10만에 달하는 소우주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7번째 대우주인 '오르본톤' 대우주에 속하는 '네바돈' 소우주, 네바돈 소우주의 100개 은하들 중 하나랍니다. 그리고 전체 광우주에는 7조에 달하는 인간거주 행성들이 있습니다.

시야를 좁혀서 우리 태양계를 볼까요? 태양계 중에서도 지구라는 행성은 플레야데스 성좌에 속하는 606번째 행성이랍니다. 그 번호가 우리 지구가 달고 있는 꼬리표인 셈이지요. 무척 재미있지요?

기독교 경전에서 말하는 '7엘로힘'이란 7개의 대우주를 관장하시는 7-주성령님들을 뜻한답니다.



< 3 > 미카엘 대천사

기독교의 '하느님'이란 단어는 두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God라는 신격체로의 하느님과 Lord God라는 인격체로서의 신이지요. 전자는 개체성을 지니지 않았지만 후자의 하느님은 개체성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창조자입니다. 신격체로서의 하느님은 창조의 자궁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인격체로서의 하느님은 창조의 자궁에서 창조행위를 하는 창조자로서의 하느님 이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듯이 우주에는 여러 창조자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소개한 네바돈 소우주/우리 우주의 하느님이신 미카엘 대천사도 그런 창조신들 중의 한 분이랍니다.

한 소우주의 지고자, 즉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7번에 걸쳐서 물질세계에 환생하는 '증여'기록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창조자가 자신의 존재를 물질세계에 노출시키는 기여행위를 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7번째로 택하신 증여의 기회가 지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카엘 대천사와 일심동체가 되어 지구에 환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내가 하느님 안에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미카엘 천사로만 알려졌을까요? 수천년 전의 사람들은 우주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16세기의 교황도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2천년 전의 사람들이 우주가 거대한 사회임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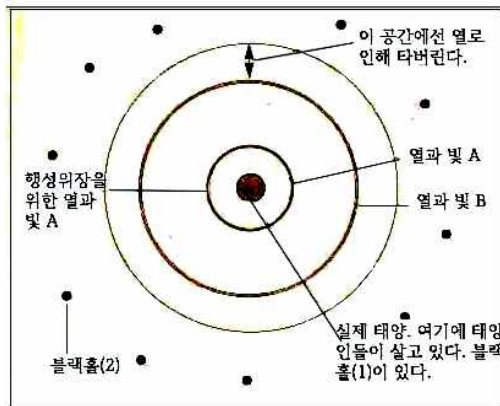


< 4 > 아쉬타 사령관

우리 은하가 속한 네바돈 소우주의 '창조주'이신 미카엘 대천사는 우주가 빛의 우주와 물질우주로 구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빛의 우주란 태양들과 그 속에 거주하시는 창조자와 천사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어떻게 태양 속에 거주자가 있을 수 있겠나요? 히브리 신화서에서는 '육체가 없는 천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6차원 이상의 육체는 3차원 인간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투명육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고열과 고압도 상관없는 육체지요.

물질우주란 3-4-5차원 세계를 뜻합니다. 5차원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들의 세계구요. 지구는 '타락' 이후 3차원 세계였지만 현재는 4차원으로 상승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지구도 '천국'의 행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미카엘 대천사가 말씀하기를 자신은 신의 오른쪽에서 그리고 루시퍼 천사는 왼쪽에서 일하신다 했습니다. 왼쪽이란 물질우주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꼭 1세기 전에 한반도에 환생하셨던 증산 강일순 선생도 루시퍼 천사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태을천 상원군 이라 했으니까요. 太乙天이란 두번째 하늘, 즉 물질우주를 뜻합니다. 上元君王이란 으뜸되는 임금이란 뜻이지요. 증산상제는 아쉬타 사령관이라는 우주인으로 돌아와 20세기 동안 지구를 위해 일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문화운동을 지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20세기



말에 그 사명이 끝났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흑백논리란 네바돈 소우주/우리 우주가 아직 통치체계가 일원화 되기 전에 발생한 우주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다 합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통치권을 인정받기 전의 일이었지요. 그러다가 2천년 전에 7번째의 '증여'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우주도 분쟁과 투쟁이 아닌 평화스런 우주로 정착된 것입니다.

(그림 '태양의 구조'는 '독특한' 간 '외계인과의 교신기록'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5 > '영적'이란 어떤 뜻일까?

우주인 예수인 그리스도 사난다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유전자(DNA)를 가지고 있는데....광자대의 영향과 보다 자비스러워지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그 사용하지 않던 DNA 끈이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¹⁾

광자대란 우리 지구와 지구 태양계가 이미 진입해 있는 우주의 특수구역이라고 합니다. 특수구역에 들어와 있지만 커다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보호막으로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더 많은 DNA가닥(12가닥)이란 신체 내에 빛이 더 많고 물질이 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DNA 가닥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임신기간은 더 짧아지고, 아기들이 몸에 물질적 질료를 적게 가지게 되면 성장은 보다 빨라집니다. 음식도 적게 먹고, 지금처럼 나이를 먹어 늙지 않을 것입니다. 수명은 대단히 길어질 것이고 많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적'인간이란 현재 잠자고 있는 12가닥 6쌍의 5차원 유전자가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활성화를 위해 사난다님은 명상에 힘쓰라고 한 것이지요.

십자가나 다른 종교적 권위에 의해 구원받는다든 생각을 버리고 명상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직접적 연결을 꾀하세요.

안드로메다 우주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하 모두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메시지'에서 인용.

영혼은 오라(Aura) 안에 있다.

Aura란 육체가 발산하는 전자기적 에너지를 뜻하는데, 유전자를 이루는 소립자들이 전자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는 12가닥 6쌍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인공태양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쫓겨난 우리 조상들은 그 후로 유전자의 일부만 사용하는(2가닥 1쌍) 3차원 인간이 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